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3/26(水)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3/25(火) 11:00부터

* 문의 : 유통물류진흥원 유통산업정책실 이영준 실장(02-6050-1510), 황미정 과장(02-6050-1514)

商議 ‘글로벌 유통기업 경영현황’ 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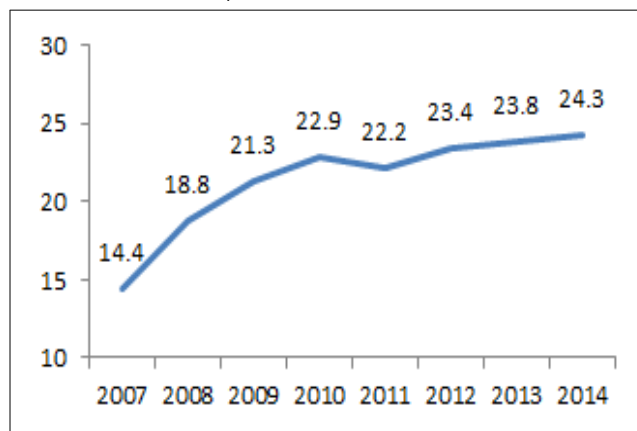
- 글로벌 Top 250 유통기업 해외매출 비중 24.3%, 8년래 최고치 ... 온라인 채널 성장률 24.8% 달해
- 매출순위 1위 ‘월마트’, 2위 ‘테스코’, 3위 ‘코스트코’ ... 韓기업은 ‘롯데쇼핑 43위’, ‘이마트 89위’ 등 4개사 등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딜로이트코리아와 공동으로 2013년(회계연도 기준, 국내기업은 2012년 기준) 매출액상위 글로벌 유통기업 250개사의 경영실태를 담은 ‘글로벌 250대 소매기업 경영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지난해 적극적 해외시장 진출과 온라인부문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지갑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상위 250개사는 평균 매출액이 4.9% 성장한 가운데 본국 이외 매출 비중이 24.3%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 소매기업은 국외 매출증가에 힘입어 역내 매출액이 ‘12년과 ‘13년 각각 -1.6%, -0.7%씩 내리 감소했으나 전체매출액은 4.5% 올랐다.

<그림> 글로벌 Top 250 유통기업 해외매출액 비중(%)



온라인유통채널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글로벌 유통기업의 온라인 매출비중은 7.7%에

그쳤으나 전년대비 성장률은 24.8%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매출상위 온라인 유통기업 50개사 중 42개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가진 멀티채널기업이었다”며 “모바일 기기가 일상화됨에 따라 새로운 매출창출의 수단이자 소비자와의 소통창구로서 온라인채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글로벌 유통기업 매출상위 250개사를 살펴보면, 1위는 ‘월마트’가, 2위는 ‘테스코’, 3위는 처음으로 ‘코스트코’가 차지했다.

국내 기업으로는 롯데쇼핑과 5계단 오른 43위를 차지했고, 이마트가 무려 50계단 상승한 89위에 올랐다. 이외에 이랜드월드가 205위, GS리테일 233위로 순위권 내에 신규진입했다.

<표1> 글로벌 소매기업 매출순위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전년 순위	기업(국가)	매출액	전년 성장률	최근5년 성장률
1	1	월마트(미국)	469,162	5.0	4.4
2	3	테스코(영국)	101,269	0.5	6.2
3	6	코스트코(미국)	99,137	11.5	9.0
4	2	까르푸(프랑스)	98,757	-5.5	-1.3
5	5	크로거(미국)	96,751	7.1	6.6
43	48	롯데쇼핑(한국)	20,978	12.4	18.0
89	139	이마트(한국)	11,290	1.9	-
205	-	이랜드월드(한국)	4,427	4.0	13.4
233	-	GS리테일(한국)	4,005	11.5	10.3

* 기업 내 유통판매 부문 매출 기준 비유통부문 매출 제외

이는 Top 250위내 역대 가장 많은 한국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롯데쇼핑과 이랜드월드는 최근 5년간 성장률 기준 상위 21위와 37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어려운 내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통기업은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글로벌 소매기업 대비 여전히 부진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실적과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유통기업의 국내 진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 성장을 위해 국내 유통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무료로 배포되며, 자세한 문의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정책실 (02-6050-1514)로 하면 된다. 